중국 화남 지구 - 사람 부족으로 섬유 산업 타격

중국의 광둥성은 홍콩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중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요즘은 광둥성에서는 '사람', '권력', '물', '외자 도입'의 4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광저우(廣州)시를 포함한 광둥성, 광시 좡족 자치구(廣西自治區), 후난성(湖南省), 푸젠성(福建省), 쟝시성(江西省)들을 포함하는 화남(華南) 지구에서는, 경제 발전이 눈부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화동(華東) 지구와의 생산 코스트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자, 니트 제품을 중심으로, 한 때 화동 지역에 빼앗겼던 주문이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일감은 넘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여 화남 지구의 섬유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둥성 전체의 고용 부족은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광둥성은 개혁 개방이 시작된 80년대부터 타 지방의 노동자를 받아들여, 전국으로부터 약 2,600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감이 급증하는 데 따라 사람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① 정부로부터 농민에 대한 감세 등의 수입 증가 대책 ② 다른 지방들의 산업 진흥 ③ 광둥성의 낮은 급여 수준 ④ SARS에 대한 불안 등이 겹쳐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계 상사에 의하면 광둥성의 최저 임금은 7단계로 나누는데, 최저는 불과 월 280위엔(元 : 1위엔=약 130원) 수준인데, 상하이의 최저 임금 635위엔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 광둥성으로 들어오던 안후이성

(安徽省)이나 쓰촨성(四川省)의 돈벌이 노동자들이 이 지구의 낮은 임금을 피하여 고향에서 직업을 찾던지 장강(長江 : 양자강) 델타 지역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

스웨터의 주산지인 둥관시(東莞市)의 편직 기술자의 평균 임금은 과거 10년간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00위엔 이라고들 말하였었다. 이 금액은 후생비 등을 포함한 월액이지만, 한동안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으로부터 줄줄이 들어오는 풍부한 젊은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조롭던 노동력의 순환이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다.

일본계 기업들도 일본의 어패럴로부터 화남 지구로의 생산 주문이 부활하고 있어 일감이 넘치고 있는데 납기를 지킬 자신이 없어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기업이 주문하려는 우량 공장에서는 구미 기업의 주문도 쇄도하여 생산 스페이스를 차지하기 어려워 납기를 지키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둥관시에 있는 일본 기업과 제휴한 스웨터 공장은 1,400명 규모의 공장인데, 현재 1,200명으로 조업하고 있다. 종업원을 잡아두기 위하여 직장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종업원 확보에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떤 일본계 상사에서는 “일본의 어패럴이나 소매점이 이제까지의 발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화남 지구로의 주문 생산을 앞으로 더욱 축소할 것이다”라고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 부족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유통 시장 개방이나, 2005년 1월부터의 쿼터 철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구미계 SPA(제조 소매업)는 중국 내 판매와 생산 거점화를 모두 주시하면서 중국의 우량 생산 공장을 선정하여 계열화를 끝냈다고 한다. 그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 상품을 조달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중국의 생산 공장으로서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공이 까다롭다”, “주문 사이클이 너무 짧고, 발주가 너무 늦어 생산에 애로가 있다”, “주문하는 로트(lot)가 작다”, “클레임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일본의 주문보다도, 구미계의 주문을 고마워하면서 받아 생산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비수기(非需期)도 포함한 계획적인 발주는 중국의 생산자들이 오래 전부터 일본의 주문자에게 희망해 온 과제인데, 일본의 어패럴도 이제는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따라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인다. ♣